

경제

광주 운남주공 과다 분양금 재판 패소 후폭풍

내 “반환금 얼마나...” 골머리

대상·액수 검토... 지급방식 따라 줄소송 날 수도

광주 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과다 책정된 분양전환 가격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환금 지급 대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비준 처치의 전국 분양전환 아파트 주민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면서 이들이 받을 액수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의 고민=LH는 입주인이 승소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분양전환 아파트 가운데 분양금 일부 반환 대상을 압축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판결문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반환해야 할지 밤을 새워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대상이 워낙 많아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LH는 신속한 결정으로 이자라도 줄여야 할 처지여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 등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 6단지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정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100%를 적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가구당 약 800만원(총 5억7000여만원)에 이자를 더해 1000만원 넘는 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소송의 파급력은 그 이상이다. LH는 2005년 3월 이후에야 감

사원 감사에 따라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 이전에 공급해 분양전환한 임대아파트 3만여 가구가 대상에 포함돼 반환금만 600억~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운남 주공아파트만도 1148가구가 공급됐다.

원심을 뒤집고 주민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재판부는 “LH는 (소송을 낸) 71가구를 제외한 이 아파트 1077가구를 과다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에 분양해 86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한 사람이 판결을 받아 승소하면 다시 재판을 피할수있지 않고도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LH가 클래스 액션의 형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줄소송이 불가피하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양금을 반환할지가 관건이다.

만일 LH가 소송을 내지 않은 가구에도 분양금을 반환한다면 이번 판결은 사실상 ‘클래스 액션’(class action)과 같은 효과를 내 사법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민사소송에서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제기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쳐,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려면 재판을 통해야만 한다. 클래스 액션이란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영미법에서 도입한 제도다.

이는 한 사람이 판결을 받아 승소하면 다시 재판을 피할수있지 않고도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LH가 클래스 액션의 형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줄소송이 불가피하다.



“안전시공” 익산지방국도관리청(청장 김일평)은 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6공구 승촌동 건설현장에서 영산강사업 참여업체 사장단과 현장소장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최우선 시공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현재 영산강 사업은 승촌보 94.6%·죽산보 96.9% 등 전체 공정 81%가 진행됐으며, 다음달 초 담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아차 10만원 간다” 목표주가 천정부지

1분기 깜짝실적

기아차가 1분기 ‘깜짝실적’을 내 놓자 증권사들이 10만원대 목표주가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내의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동안 주가 급등으로

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어 ‘뱀목치기’ 전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2일 “기아차의 연결 이익이 올해 4분기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수익비율(PER) 10배를 적용한 적정 가치액은 40조원”이라며 목표주가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이날 한국투자증권도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목표주가를 9만2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우증권은 10만원에 근접한 9만8000원을 목표주가로 내놨다.

물가 무섭게 뚝다

광주 4월 4.2% 올라... 4개월 연속 4% 이상 상승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오르며 지난 1월 4.0% 상승 이후 4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2(200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이는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지수가 지난해 대비 각

각 11.0%, 14.0% 상승하며 물가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이며, 3월에 비하면 0.1% 상승했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1.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올랐으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험세(0.0%)를 유지했다.

광주지역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지난해보다 0.1% 각각 상승한 가운데 품목

별로는 설탕(9.0), 목욕료(8.2), 쌀(8.1), 무(8.0), 런닝셔츠(6.9), 감자(6.2), 불고기(6.0), 당근(5.6) 순으로 많이 올랐다.

또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 오른 반면, 지난해보다 1.4%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신선어개류가 지난해보다 22.6% 올랐다. 농축수산물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0.4% 하

락했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보다 5.7% 상승폭을 보였다.

한편,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2% 상승했으며 지난해 대비로는 0.0%로 보험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1~4월의 물가 상승률은 4.4%를 기록, 앞으로 5~6월에 물가가 더 안정된다고 해도 상반기 평균 4%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당초 제시한 ‘3% 수준’의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상품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반영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회양~적금 도로공사’ GS건설·현대산업개발 1순위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2일 올해 국도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2600억원대 ‘회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평가에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1순위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익산국도청은 이날 총 연장 5.9km 공사금액 2612억원 규모의 ‘회양~적금 도로 2·3공구 터키공사’의 실시설계를 평가한 결과, 2공구 사업에 GS건설이 89.19, 3공구 사업에 현대산업개발이 90.04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역 업체로는 이들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금호건설과 대진건설이 우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내 공공발주 감소와 최근 리비아 등 중동 민주화 사태로 해외건설 수주가 위축되면서 국내 공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국세청은 2일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수급요건을 갖춘 67만 가구에 우편·전화·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주택 또는 기혼자 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춘다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3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10타경 28442	1	광산구 우산동 1572-5 103동 3층 303호 59.61㎡	아파트	53,000,000	53,000,000	임차인있음
2010타경 43809	4	동소 257-12 172㎡ [매각으로인해소멸되지 않는선순위수유권이전허가권등기있음]	전	2,580,000	2,580,000	요
2010타경 44352	5	동소 257-20 73㎡ [분양수기소재하여분묘기]	전	1,460,000	1,460,000	요
2010타경 42196	6	동소 257-42 20㎡	전	260,000	260,000	요
2011타경 281	1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25-4 3970.7㎡	답	59,560,500	59,560,500	요
	2	동소 1325-5 1908.5㎡	답	28,627,500	28,627,500	요
	3	화순군 도곡면 천양리 346 417㎡	답	17,097,000	17,097,000	요

● 국고인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목적지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매각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1. 5. 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